

자동차 수출 발목잡는 '도로교통법'

번호판 없다며 야적장 이동 금지...물류비 부담 늘고 선적 지체

수출용 차량을 야적하기 위해 마련한 부지가 도로교통법에 힘입어 제 기능을 못하고 차량선적은 물론 항만 물류유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카렌스, 스포티지, 쏘울, 봉고 등 한 달에 1만~1만5천대가 목포 신항에서 북미와 유럽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그동안 목포신항만은 정부와 부두 운영 관련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수출을 해왔지만 결손이 지속되자 지난해 4월 수송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수출용 자동차가 광양항만으로 이송될 것으로 우려되자 목포항만청이 서둘러 대한통운과 세방, 동방 등 하역 3사가 60억원을 들여 선적이 용이한 신항 배후부지에 야적장을 마련했다.

그러나 항만으로 부터 300여m 거리에 위치한 이 야적장은 기능을 하



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사진>

는 시간도 훨씬 더 소요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하역사 관계자들은 "시가 항만 활성화와 물류확보를 위해 포트세일 등을 계획하기 보다는 현재 확보돼 있는 물류 유지를 위해서라도 신항 배후부지 도시계획 도로 변경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도로를 폐지하고 항만도로로 변경하면 인근 주민 등 불특정인들이 이용을 할 수 없게 되고 개인소유자들의 건축 등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법적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목포지방방만청은 수출자동차 선적과 신항 활성화를 위해 목포시에 도시계획 도로 삭제 등을 협조 요청하고 야적장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러한 문제로 3사가 매입한 야적장에서 3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항만까지 차량을 이동하려면 자동차운반차량을 이용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이른봄으로 선적하게 되면 10여분이야적장 주변이 목포시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돼 있어 차량번호가 없는 수출차량은 도로 교통법상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하역사들은 수습역원을 들여 야적장을 마련해놓고도 목포신항만과 정부 부지를 임대하는 등 물류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고 야적

하는 시간도 훨씬 더 소요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하역사 관계자들은 "시가 항만 활성화와 물류확보를 위해 포트세일 등을 계획하기 보다는 현재 확보돼 있는 물류 유지를 위해서라도 신항 배후부지 도시계획 도로 변경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도로를 폐지하고 항만도로로 변경하면 인근 주민 등 불특정인들이 이용을 할 수 없게 되고 개인소유자들의 건축 등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법적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목포지방방만청은 수출자동차 선적과 신항 활성화를 위해 목포시에 도시계획 도로 삭제 등을 협조 요청하고 야적장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로써 하역사들은 수습역원을 들여 야적장을 마련해놓고도 목포신항만과 정부 부지를 임대하는 등 물류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고 야적

하는 시간도 훨씬 더 소요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른봄으로 선적하게 되면 10여분이야적장 주변이 목포시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돼 있어 차량번호가 없는 수출차량은 도로 교통법상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하역사들은 수습역원을 들여 야적장을 마련해놓고도 목포신항만과 정부 부지를 임대하는 등 물류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고 야적

하는 시간도 훨씬 더 소요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른봄으로 선적하게 되면 10여분이야적장 주변이 목포시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돼 있어 차량번호가 없는 수출차량은 도로 교통법상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하역사들은 수습역원을 들여 야적장을 마련해놓고도 목포신항만과 정부 부지를 임대하는 등 물류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고 야적

하는 시간도 훨씬 더 소요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른봄으로 선적하게 되면 10여분이야적장 주변이 목포시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돼 있어 차량번호가 없는 수출차량은 도로 교통법상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하역사들은 수습역원을 들여 야적장을 마련해놓고도 목포신항만과 정부 부지를 임대하는 등 물류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고 야적

하는 시간도 훨씬 더 소요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른봄으로 선적하게 되면 10여분이야적장 주변이 목포시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돼 있어 차량번호가 없는 수출차량은 도로 교통법상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하역사들은 수습역원을 들여 야적장을 마련해놓고도 목포신항만과 정부 부지를 임대하는 등 물류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고 야적

하는 시간도 훨씬 더 소요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른봄으로 선적하게 되면 10여분이야적장 주변이 목포시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돼 있어 차량번호가 없는 수출차량은 도로 교통법상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하역사들은 수습역원을 들여 야적장을 마련해놓고도 목포신항만과 정부 부지를 임대하는 등 물류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고 야적

하는 시간도 훨씬 더 소요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른봄으로 선적하게 되면 10여분이야적장 주변이 목포시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돼 있어 차량번호가 없는 수출차량은 도로 교통법상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하역사들은 수습역원을 들여 야적장을 마련해놓고도 목포신항만과 정부 부지를 임대하는 등 물류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고 야적

하는 시간도 훨씬 더 소요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른봄으로 선적하게 되면 10여분이야적장 주변이 목포시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돼 있어 차량번호가 없는 수출차량은 도로 교통법상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하역사들은 수습역원을 들여 야적장을 마련해놓고도 목포신항만과 정부 부지를 임대하는 등 물류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고 야적

하는 시간도 훨씬 더 소요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른봄으로 선적하게 되면 10여분이야적장 주변이 목포시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돼 있어 차량번호가 없는 수출차량은 도로 교통법상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하역사들은 수습역원을 들여 야적장을 마련해놓고도 목포신항만과 정부 부지를 임대하는 등 물류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고 야적

하는 시간도 훨씬 더 소요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른봄으로 선적하게 되면 10여분이야적장 주변이 목포시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돼 있어 차량번호가 없는 수출차량은 도로 교통법상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하역사들은 수습역원을 들여 야적장을 마련해놓고도 목포신항만과 정부 부지를 임대하는 등 물류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고 야적

사교육 없는 무안 현경고 명문으로

서울대 등 명문대 진학...농어촌 자율교 성공 모델

무안 현경고등학교(학교장 김응회)가 면 단위에 위치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꾸준한 학력 향상을 지역 명문고로 거듭나고 있다.

무안 현경고는 2009년도 입시에서 서울대생 1명을 배출한 데 이어 2010년도 입시에서도 박은지 양이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제에 1차 합격하고 광주교대 2명, 한국외대 1명, 부산대 4명, 한국해양대에 2명이 1차 합격하는 등 전국 명문대에 학생들을 진학시키고 있어 농어촌

자율학교의 성공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면 단위에 위치한 관계로 변별한 학원 하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학교에서의 학습 프로그램으로만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있어 정부의 사교육비 없는 학교 만들기 정책에도 부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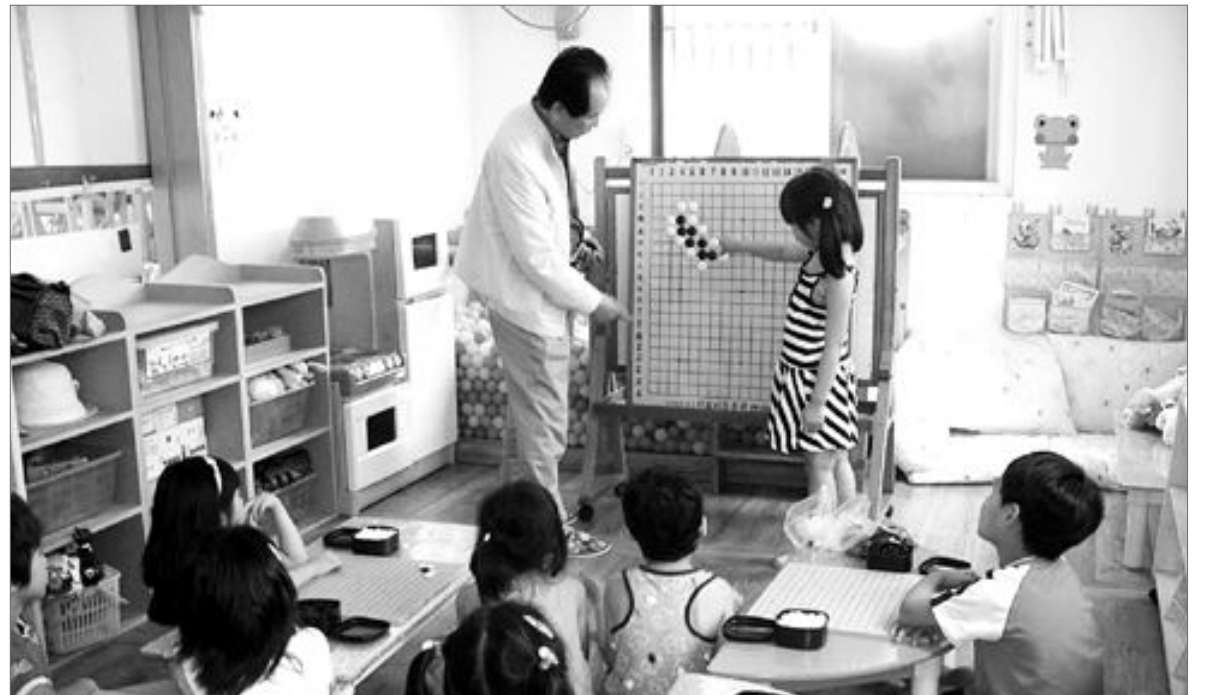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지역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현경고가 이토록 발전을 한 것은 2007년부터 '농산어촌 우수교'로 지정된 것이 결정적

인 계기가 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전남도교육청, 무안군청으로부터 많은 예산지원을 받아 학교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학생·학부모·교사가 혼연일체가 돼 학력 향상 및 인성 함양 교육에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2010년부터는 배움과 돌봄의 기능이 하루 24시간 동안 진행되는 '기숙형 공립고'로 운영되기 때문에 더욱 좋은 환경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어 농산어촌 자율학교인 현경고의 발전이 더욱 기대되고 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배운대로 잘도 하는구나~" 목포시 주관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한 노인이 최근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바둑을 지도하고 있다. 목포시는 올해 사업비 24억원을 확보해 3천여명의 노인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목포시의회 시정질의 일문일답으로 변경

목포시의회가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시정 질의 방식을 일문일답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25일 시의회에 따르면 다음 달 열리는 제281회 정례회의 때부터 시정 질문을 기존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에서 일문일답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전남 신안비치호텔에서 시의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초청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일문일답 시정질문 방법론을 익혔다.

장복성 시의회 의장은 "기존 일괄질문 답변방식은 질문과 답변이 일방적이었는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경우가 많아 시정질문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문일답 방식을 통해 보다 생동감 있고, 한 걸음 앞서가는 의정 활동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www.kwangju.co.kr

"고향 향한 이 마음 보탬됐으면..."

변호사 김구일씨, 수석 52점 신안군에 기증

신안출신 변호사가 평생 수집해 소장하던 수석(壽石)을 신안군에 기증해 화제다.

25일 신안군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김구일 변호사가 명품 수석 52점을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 기증, 분재공원 내에 전시중이다.

이번에 기증된 수석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축경(縮景)의 오묘함이 함축돼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신안군 안좌면 창마리가 고향인 김 변호사는 "평소 고향에 대한 애착심을 갖고 있던 중 '천사심 예술전시관' 건립 소식을 듣고 작은 힘

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소장하고 있던 수석을 기증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김구일 변호사는 지난 1968년 조선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2년 행시, 1974년 사시에 합격해 광주 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장, 재직 신안군 향우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법무법인 삼풍 대표변호사로 활동중이다.

/신안=조완형기자 wncho@

"소외된 이웃 찾아갑니다"

진도군, 목욕봉사 등 이동서비스 호평

진도군이 거동불능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동 봉사'를 실시해 호평을 받고 있다. 25일 진도군에 따르면 특수시책으로 지난 2004년부터 연평균 150회에 걸쳐 1천800여 명에게 이·미용과 목욕 봉사 등 지역 주민에게 찾아가는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거동불능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 계층에게 집안 청소와 말벗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진도군은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이동 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활 사업을 통한 사회 복지 확충으로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진도=박현경기자 hypark@

원도심 차없는 거리로 오세요

목포시, 창평동 우체국~오거리 구간 완공

목포 창평동 우체국 ~ 오거리 구간 원도심 차 없는 거리 디자인이 완공됐다. 목포시는 지난 24일 로데오 거리 축제행사에 맞춰 로데오광장에서 준공식을 가졌다. 목포시가 원도심 중심상권인 차 없는 거리 일대의 경기활성화와 유동인구 증대를 위해 추진한 디자인 도로 조성사업은 10억원의 예산을

들어 지난 4월 공사 착수 후 6개월 만에 공사를 마무리했다. 차 없는 거리 디자인 도로 조성사업은 한전 지중화와 도시가스 매설공사와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도로굴착에 따른 예산의 이중투입을 방지하고, 원도심내 특색 있는 길고 샹의 거리조성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

두기 위해 추진됐다. 디자인 도로는 화강석을 사용 파도 이미지를 곡선화시켰고, 천연목재를 이용한 보행로를 설치해 목재의 부드러움을 밟고 느낄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시공됐다. 또한 태양광 지중등을 사용해 전선 없이 야간 경관 조명을 화강석 도로에 매입함으로써 불거리가 있는 거리로 방문객의 시선을 끌어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영 / 화 / 안 / 내

영화에세이

메가박스

1관	굿모닝프리젠티 (전체) 최고급관
2관	디스트릭트9 (184)
3관	나는 비와 함께간다 (184)
4관	불꽃처럼 나비처럼 (154) / 캄아웃파티 (154)
5관	굿모닝프리젠티 (전체)
6관	부산 (184) / 정승필 실종사건 (154)
7관	팬도럼 (184)
8관	불꽃처럼 나비처럼 (154) / 디스트릭트9 (184)
9관	굿모닝프리젠티 (전체)

• 아프리카 주자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권결제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구.련면외국사거리 ☎에메1544-0600

콜롬버스시네마

1관	굿모닝프리젠티 (전체)
2관	내사랑 내결에 (124)
3관	굿모닝프리젠티 (전체)
4관	굿모닝프리젠티 (전체)
5관	불꽃처럼 나비처럼 (154)
6관	정승필 실종사건 (154)
7관	썬제이 (154)
8관	나는 비와 함께간다 (184)
9관	부산 (184)
10관	디스트릭트9 (184)
11관	팬도럼 (184)

일도사람 영화사관 • 메메: www.joycnc.com / 1588-7941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매남점 (무역화관옆)



1588-7941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1번 or 2번) → 0번

하미시네마

1관	애자 (154) / 국가대표 (124)
2관	부산 (184) / 호우시절 (154)
3관	정승필 실종사건 (154) / 내사랑 내결에 (124)
4관	불꽃처럼 나비처럼 (154)
5관	팬도럼 (184)
6관	디스트릭트9 (184)
7관	굿모닝프리젠티 (전체)
8관	굿모닝프리젠티 (전체)
9관	굿모닝프리젠티 (전체)
10관	썬제이 (154)

• 500여대 넓은 주차장(3시간 무료) • 365 매일 심야 • 이동통신사 OK 캐쉬카드 할인 혜택 • 8미 수영장 289-5757 • 8미 놀이장 262-0925 • 8미 골프장 251-5080 • 8미 담주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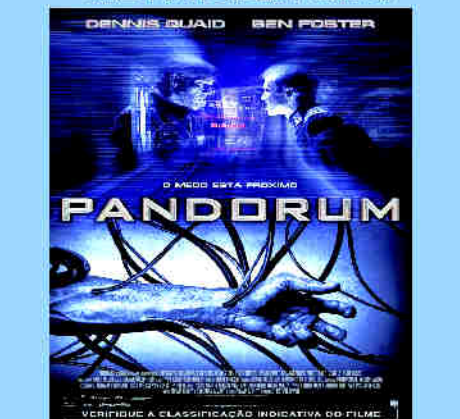


고려사람 고객상담 • www.hamichinema.co.kr / 1588-9120 전대무한 이마트포털 ☎ 267-7777

씨너스전대

1관	팬도럼 (184)
2관	부산 (184) / 불꽃처럼 나비처럼 (154)
3관	굿모닝프리젠티 (전체)
4관	나는 비와 함께간다 (184) / 국가대표 왕경만 (124)
5관	내사랑 내결에 (124) / 정승필 실종사건 (154)
6관	디스트릭트9 (184)
7관	굿모닝프리젠티 (전체)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ARS 전화예매 1544-0070



색깔있는 영화상영 • www.cinusa.co.kr / 1544-0070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제일시네마

1관	굿모닝프리젠티 (전체)
2관	굿모닝프리젠티 (전체)
3관	불꽃처럼 나비처럼 (154)
4관	정승필 실종사건 (154)
5관	내사랑 내결에 (124)
6관	나는 비와 함께간다 (184) / 부산 (184)

• 무료주차 3시간 •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광주세무서 옆 초년터우주점) • 8, 9관점 구역 고객에 한함



새로운 기쁨 • www.primuscinema.com / www.jelicinema.co.kr • 용평로 3기 ☎ ARS 전화예매 ☎ 227-1960